



# 문화매일신문



제1571호

2024/ 4/ 24/ 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2024년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 흥행 예감!

경북도, 3.18. ~ 4.18. 한달간 AI·메타버스 활용한 영화·영상 작품공모 마쳐 해외 42개국 포함 무려 527편 몰려... 국내외 뜨거운 관심 확인

경상북도가 주최한 '2024년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이하 'GAMFF')' 작품 공모전이 18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로 한 영화 및 영상물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 공모전 결과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42개국을 포함 527편의 작품이 응모해 국내외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연출 감독, AI·메타버스 전문가에서 일반인, 학생까지 폭넓은 참여로, 개최 첫 회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며 6월 개최되는 영화제 흥행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이번 공모전은 영화 부문과 영상 부문을 나누어 진행돼, 총 21개 작품에 3천 5백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수상작은 유명 영화감독인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와 더불어, 공모 기간에 교육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캠프 원데이 클래스'에는 50명 모집에 전국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며 AI·메타버스 영상 제작 및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공모전을 주관한 GAMFF조직위



는 '국제영화제'라는 대중예술에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상·영화 공모'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각계각층의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이 해외를 포함한 흥행 물이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임영하 영화제조직위원장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화제라 작품공모에 150여 편을 목표로 했으나, 마감 결과

527편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폭발적인 관심에 다소 놀랐다"며, "성원에 힘입어 6월에 개최하는 영화제 준비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 '메타버스 수도 경북' 선포, 메타버스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4차 산업 시대 미래 기술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경상북도는 오는 6월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AI·메

타버스 영화제를 개최한다.

6월 15일 개최되는 '2024년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는 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공모전 순위발표, 레드카펫 진행, 인기 가수 공연 등 화려한 영화축제로 진행된다.

경상북도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영화제 플랫폼(GAMFF WORLD)과 구미시 관내 영화관 등 온·오프라인 스크린을 통해 공모 수상작 및 국내외 초청작을 일반에 공개한다.

또한, 미국, 키르기스스탄, 캐나다 등 해외 영화제와의 협력을 통해 초청작 상영, 상호교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I·메타버스 영화제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장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경북이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영화제 준비에 참여한 감독들과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모전 성공을 초석으로 해 다가오는 영화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2024 경기도박물관 대학 '인문학 강좌' 개강!

〈초원길·비단길·바닷길을 통한 동서양 문명의 교류〉를 주제로 4.23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4월 23일부터 '2024 박물관 대학'을 개강한다. 경기도박물관 대학은 역사·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듣는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2024년 상반기 강좌는 《동서양 문명의 교류(초원길·비단길·바닷길)》이며 ① 초원과 사막 ②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부족 ③ 선비와 돌궐 ④ 소그드인과 실크로드 ⑤ 위구르 제국과 실크로드 ⑥ 파스공물리아와 대여행의 시대 ⑦ 고대의 해상교통로 ⑧ 중세의 해양 교통로 ⑨ 학술답사: 경기지역 ⑩ 송원명칭대의 해양 교통로로 총 10회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교역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교류에 기여한 국가와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화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의 중앙 유라시아지역이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징 등 알아두면 좋을 지식을 축적하는 의미



있는 강좌가 될 것이다. 강사는 조복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정일교(한국외국어대학 HK연구교수)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매 강좌마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024 경기도박물관 대학 《동서양 문명의 교류(초원길·비단길·바닷길)》는 4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에 경기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앞장 다짐

전남도, 목포서 도정 설명회 열어 소통·협력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 고향방문 및 도정설명회'가 지난 21일 목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호남향우회 김주찬 향우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향우회원과 손명도 전남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향방문 행사에서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등 도정 현안을 소개하고 지역 발전과 향우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원이 정성을 담아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남도에 기탁하고 가족, 지인 등이 참여

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신청서도 전달했다.

김주찬 향우회장은 "목포에서 도정 설명회와 현장체험 행사를 갖게 돼 매우 뜻깊고 큰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대구경북호남향우회는 전남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 성공하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명도 실장은 "향우회원들의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 전남도는 에너지·우주항공·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100년을 밝힐 첨단전략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가 시행 1년 반만에 46만 명을 돌파한 것은 향우들의 적극적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우회 지원을 보다 강화해 많은 향우께서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에 애

정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하고 있다.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240여 전남지역 할인가맹점에서 혜택을 누리고, 관광과 축제 정보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박종배/기자

## 충청남도 불법 자동차 합동 점검 나선다

도, 24~26일 사업용 여객·화물차 대상 집중 지도·점검

충남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만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스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경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차차 등이다. 이외에도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콜벤 불법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등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고양특례시

# 2024

##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의원, 보육휴가 조례 개정

##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 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을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

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해 7건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이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의 향상 도모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나주시와 해남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전국 8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자금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 원칙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

정성,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고은행 재무 건전성 평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김정임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가 가능한 유휴자금을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시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 관문 지역 개발 추진 촉구

## 2018년 발표된 '관문도시 조성사업'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8년 발표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역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방, 사당, 은수 등 네 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3단계 대상지는 개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지부지 묻어버리려 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 발표 후 6년이나 지나 행정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 현장 상황이 변

화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다시 한번 필요성과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경계 도시의 교통·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문 지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실패한 사업인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최광수/기자



#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최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부의안건 처리

예천군의회는 2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 의원, 간사 강경탁 의원)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본 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7566억 원이 제출되어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나라살림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군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며 당부했고, "회룡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불꽃 축제와 5월에 개최될 예천활축제, 현대양궁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

에서도 응원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근수/기자



# 의정부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 '시민 제보'접수 및 운영

의정부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6.11.~6.19.)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0회 정례회가 종료된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최정희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한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의정부시의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기간**  
2024.04.22(월) ~ 05.21(화)

**제보사항**

-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

**※ 제외사항**

- 개인 사생활 침해사항
- 재판 또는 상급기관 감사·수사 중인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

**접수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메일(gunbae1112@korea.kr)
- 우편[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로 41, 3층(의회사무국 의사팀)]

문의 | 의정부시의회 의사팀 T.031-828-2532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너연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시책 추진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재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민관경 거점센터 조성)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

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하여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더민주, 안양3)은 "그 동안 방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하여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및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 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하여 사기 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은 22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안산시는 본오동, 사동, 해양동, 선부동, 초지동 등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돌봄기관으로서 현재의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간식비 등 기관 운영지원이 다소 열악하여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이 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 고문으로도 위촉되어 2026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치안 현안 논의

도민 안전 위해 도의회와 경찰서-자치경찰위원회 간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하기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2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고양경찰서장 등과 함께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동혁 의원은 "2023년 6월 자율방범대가 정식 출범했는데, 대원들로부터 경찰서의 활동지원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띄고 계신만큼 활동 장비나 공간 등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에서도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우철 고양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치안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동혁 의원은 "차담회를 마련해주시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고양경찰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지역별 주요 치안사업에 대한 도의원과 경찰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가저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과 함께 임태희 경

기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통폐합 문제,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 학교 환경개선, 학교 석면 제거사업 등 경기도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주요 교육현안 중 하나인 경기도 내 학교 통폐합 문제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밖에 많은 지역의 교육현안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 "외국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일부 지원금을 받지 못,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교육권 침해 소지나 어린이집의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로 앞서 면담에서 건의받은 학교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임태

희 교육감께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두 학교의 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뜻을 열심히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개선해 교육하기 좋은 경기도와 수원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세무 교육' 진행

## 마을세무사가 세무 교육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광주시는 지난 18일 광주시 노동자복합센터에서 대리기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교육은 노동자복합센터를 이용하는 플랫폼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 마을세무사인 이은형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많은 대리기사들이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방법'



도 함께 안내했다. 이은형 세무사는 "이번 세무 교육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님께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으며 앞으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몰라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이번 교육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용해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소한 광주시 노동자복합센터에서는 향후에도 무료 건강상담, 심폐소생술 교육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우)·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

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김범상/기자



# 이천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 지키다

## 다회용기 대여·세척사업 자활사업장 신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MOU 체결

이천시는 지난 4월 22일 14시 SK하이닉스, 이천지역자활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천시청 5층 다목적실에서 다회용기 대여·세척 자활사업장 신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은,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 권인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다회용기 대여·세척 자활사업을 통해 일회용기 대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특수재질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관내 축제, 장례식장,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사용된

용기는 멸균·세척해 일회용품 사용 절감 및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여 자활사업장 건립에 사용한다.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보를 추구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ESG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는 자활사업장 건립을 위해 신둔면에 소재한 사유지를 제공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은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선순환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며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관협력 공조 사업으

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전국 최고의 민관협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기후변화주간 운영...22일 '지구의 날' 소동행사 동참

## 화성시,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지구의 날 소동행사 동참

화성시가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를 제16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에는 소동행사를 운영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과 대학생들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해 제정된 기념일로,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는 민간중심운동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009년부터 이를 기념해 22일을 전후한 1~2주일 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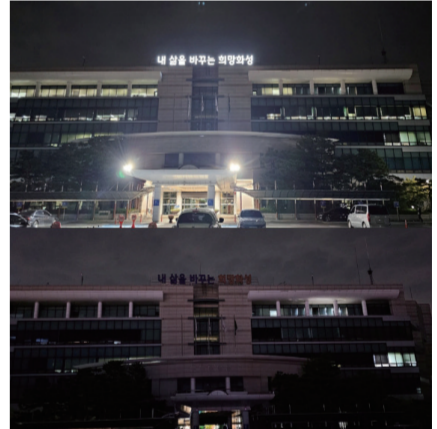
22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동행사는 화성시도 동참했으며, 화성시청, 각 출장소 등 공공기관과 280여 곳의 아파트 단지가 참여했다.

시는 기후변화주간 기관·단체 행사로 화성시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22일~28일) ▲재활용센터 재활용 교육(23일~25

일) ▲에코스포츠타운 운영(26일) 등을 진행한다.

오재홍 환경국장은 "제16회 기후변화주간 운영이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고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성남시, 하대원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 오는 5월 2~3일 신청서 접수...총 10개 점포 대상

성남시는 하대원공설시장(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18, 126) 빈 점포 10곳의 입점자를 오는 5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하대원공설시장은 지난 2018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기존의 단층 가설 건물에서 2층 건물 2개동의 신식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한 '성남시 1호 공설시장'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빈 점포는 가동 9개소, 나동 1개소로 총 10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접수일 현재 국제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성남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이며 입점 희망자는 수경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점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발표 후 계약 체결 및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 입점 및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빈 점포 공개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신청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2024. 5. 3. 금 — 5. 15. 수

곤기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개막식 5. 4.(토) 16:00

20th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2024. 7. 16. - 7. 20.

# 여주시 정보통신과, 전직원 회의 '수요정통회' 실시

### 정기적인 부서 회의 통해 활발한 정보공유장 마련

여주시청 정보통신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주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주요 업무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전화,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공데이터 등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빈틈이 생겨 행정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업무들이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 대응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연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점검을 위하여 매월(세번째 수요일) 부서 전 직원 정례회의 '수요정통회'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달 주요 회의 내용을 보면, 2024년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장애 시 대응 및 관리 체계, 부서 주요 작업 공지 등 부서 전 직원 협조 사항 및 공유 내용 등 서로 의견을 개진하

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석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분야인 점을 고려해 전 부서원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스마트한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역량을 끌어올리면 내외부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LP)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추진

고양트레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 엘피지(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자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를 사용하는 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당 시설 개선비는 275,000원이며 본인부담금 50,000원이 포함되어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

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엘피지(LPG)용기 사용자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86세대의 엘피지(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한영기/기자

# 광명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 강화에 총력전 펼친다

###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홈페이지 내 성명정보 비공개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민원인으로 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직원 비율이 42.6%로 조사되면서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된다. 또한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 있는 직원 사진도 없앤다.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의적 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조직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촉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외에도 폭언, 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

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일/기자



#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들어 있지 않아 전문업체 아닌 환경자원화시설서 처리 예정

용인특례시는 일반산업단지에서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

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

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하남시, 동부신협 임원들과 '4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진행

### 22일 신장·덕풍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 방문해 '4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진행

하남시는 22일 동부신협 윤충식 이사장 및 임원들과 함께 신장·덕풍 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를 방문해 '4월 전통시장 가는 날'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1회 이전 재 시장과 지역 내 단체들이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동부신협 임원

등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이용해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신장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는 신장상권진흥사업의 일환으로 ▲

석바대 문화클래스(4월 24~25일) ▲ 석바대 골목마켓(4월 27일 오전 11시~오후 4시) ▲신장시장 쿠킹클래스(4월 25~26일) ▲신장시장 문화클래스(4월 29~30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장시장은 매주 금요일 다양한 외부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금요일 장터를 운영하고, 덕풍전통시장은 매월 4·9일에 5일장을 열어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한다.

하남수산물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주관



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5월 4~8일까지 5일간 3만4,000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만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3만원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범상/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 전북자치도, 2차 개정 입법과제 릴레이 세미나 개최

## 부처 문턱 넘고 특례 수용 높일 전략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려



전북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회

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헬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헬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헬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헬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헬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틀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는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현재 위기를, 전북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층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극복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크루즈산업의 국내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 중인 도 실무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전북 내 서해안을 국제크루즈관광진흥지구로 최초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켜 전북의 경제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보완하기 위한 기회가 됐다"며,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발굴된 40여 건의 2차 개정 입법과제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처의 반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에서 모색된 방안은 앞으로 부처 대응 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상반기 중으로 중앙부처 설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 '베스타스'공장 유치

## 목포 신항,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전진기지로 우뚝!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포시의 포부가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플라-머스크 A/S,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신항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신규투자를 위해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유항만시설 및 산업활성화 가능성 등 투자여건을 면밀하게 타진해왔고, 최종적으로 목포시를 선택하게 됐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3천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해 목포 신항 1단계 항만 배후단지 200,000m<sup>2</sup>(약 6만여평)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규물류량 창출을 통해 목포 신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홍률/기자

박홍률 시장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기업이 목포시에 투자를 확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신항에 잘 자리잡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목포 신항이 해상풍력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전용 인프라 확충, 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산업 측면의 한계에 봉착한 전남 서남권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상풍력 신산업을 통한 유관기업 대거유입,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률/기자

# "반값 강진 가족여행 정책, 관광 소비지출 이끌어"

## 강진군-한국관광학회, 업무협약 및 관광 활성화 포럼 성황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0년 관광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관광학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전국 대학관광학과 관련 교수들이 회원인(사)한국관광학회와 강진지역 청년사업체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관광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강진군은(사)한국관광학회로부터 강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역관광 발전 등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학술 자문을 받는다.

업무협약에 이은 포럼은 주제발표, 사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포대 심원섭 교수는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고, 국토연구원 안소현 박사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지방인구 소멸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는 인천 강화의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생태계 '발표'를 통해 예술과 지역 문화를 두루 경험하는 참여형 여행의 선진사례를 소개,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학회장은 "현

재 국내관광에서 가장 전국적인 화두는 강진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반값 가족여행'이다. 인구 3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이 단순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포럼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포럼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국관광학회도 강진군의 관광을 적극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는 "오늘 개최된 정책포럼은 한국관광학회와 손을 맞잡고 강진군의 관광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진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 진도군,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 관리 등 현장교육 실시



진도군이 '나라꽃 무궁화'가 가로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지·전정(가

지를 골라 자르기), 삼목(꺾꽂이)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 무궁화 육성·보급 등 체계적 관리 추진

익신면 사천리 운림산방 일원에서 실시한 현장교육에는 사단법인 무궁화연대 이춘강 고문이 주관하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고광일 사무관, 윤희원 주무관, 진도군청 공원녹지팀장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자 2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가로수로 적합한 무궁화 규격과 품종, 식재,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무궁화는 7월 초에서 9월 말, 약 100일 동안 매일 자라 화려한 꽃은 피워 긴 개화기간이 겨례의 열과 민족정신을 상징한다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이라고 이춘강 고문은 설명했다. 김영진/기자

또한 건강한 무궁화로 자라기 위해서는 양지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고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무궁화의 위상 제고와 인식 전환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9회 전국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무궁화 육성 보급과 무궁화동산 교육관광 명소화를 위해 진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진/기자

# 보성군, 와이-팜 엑스포(Y-Farm Expo)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더불어 살기 좋은 보성, 수요자 중심의 귀농 정책 적극 홍보

보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농협이 주최하는 2024'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인 귀농 귀촌 유치에 나섰다. 보성군은 상담 전문관을 운영해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맞춤형 지원정책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사업 Q&A'를 제공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한 2024년 '정책 홍보 책자'를 상담에 활용했다. 또한, 보성군이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점과 쌀, 감자, 키위, 두릅, 쪽파, 녹차, 등 농산물을 재배 최적지인 점을 강조해 귀농 정책을 적극적 상담했다. 최원영/기자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을 위해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비롯해 현장실습 교육, 재배 이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귀농인의 정착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 초기 정착과 귀농 계획 실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하고 귀농 귀촌인의 창업 및 주거확보를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청년 농민 농업창업,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융자), △귀농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완도 청해진 유적, 국가 유산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

## 주민 의견 사업 계획 반영, 장좌리 정주 환경 개선

완도군은 사적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국가 유산 경관개선'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이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며 국가 유산 구역 내 마을의 낙후된 정주 기반 시설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지는 '완도 청해진 유적' 인근의 장좌리이다. 올해는 사업 추진 방침 등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국비 1억, 군비 1억)이 투입되며, 이

후 내년엔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침은 국가 유산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마을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특히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문화예술과 과장은 "그동안 국가 유산 내 주민 거주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축 행위 규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가 유산과 주민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최원영/기자

# 경주 센트럴파크 황성공원, 도시 숲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조성

장기발전 구상 및 인구변화에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배양수 건설도시국장, “도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도는 지난 19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을 심의했다. 심의 안건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울진 군 관리계획 변경, 칠곡 개발행위 허가 안이다.



이는 2021년 10월 8일 변경 승인된 203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실행계획이다.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은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가 살고 싶은 김천’을 도시미래상으로 제시하고 혁신도시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변화된 사회·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

여 목표인구를 2020년 20만 명이었던 것을 2040년은 16만 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울진 북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은 소음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녹지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물류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칠곡 개발행위 허가 안은 진출입로 경사를 낮추고 재난 시 단지 내 소방 차량 이동이 원활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조건 등으로 4건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배양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 ‘제2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신재생에너지 세계 Top10 기업 최신 기술제품 한자리에 모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코 등이 주관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에서 25개국 330개사(1,100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솔라시티(Solar City) 대구’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수요기업도 대거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에너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최대 전시회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도 세계 Top10 셀·모듈·인버터 기업들이 출출동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의 각축전을 펼 예정 이다.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솔라, JA솔라, 징코솔라, 론지솔라, 라이젠 에너지, 캐나다인 솔라, 트리나 솔라, 티더블 유 솔라 등 태양광 셀·모듈 분야 글로벌 Top10 기업 중 8개사가 참가를 확정했 으며,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선그로우, 화웨이, 그로와트, 솔리스, 시능, 굿위, 소파 솔라 등 글로벌 TOP10 중 7개사 가 참가한다. 또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솔테크 닉스, 신성이엔지, 아이솔라에너지, 알 피오, 그랜디션, 에스디엔, 오싸아이파

워, 다스테크, 에스지에너지, 에스케이 솔라에너지, 이노일렉트릭, 가온E&C, 한남전기통신공사 등 국내 유망기업도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 등 23개국 83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감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린에너지엑스포 기간 중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수소 분야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PVMI-H2MI)가 역시 개최된다.

4월 24일, 25일 양일간 열릴 태양광마케팅사이드(PVMI)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은 태양광 발전으로!’를 주제로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공유되며, 4월 25일과 26일 양일에는 ‘수소-미래로 도약하는 혁신동력’을 주제로 수소마켓사이드(H2MI)가 진행된다.

올해는 최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13개국에서 태양광-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정책과 시장동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1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교류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에너지 문제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전시회”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참가 기업·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소통 중심 놀이형 어린이 영어교육,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확대 실시

박형준 시장 “부산 거주 어린이 누구나 집 앞 ‘들락날락’ 방문에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매년 운영 시설을 늘리겠다”며, 시는 부산에서 나온 자란 아이들에게 고품질 평등한 영어교육 기회 제공 ‘영어교육 걱정 없는 도시’조성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들락날락 11곳에서 진행한 놀이형 원어인 영어교육을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라는 이름으로 올해 부산 전역 들락날락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은 4~7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원어인 놀이를 통해 영어를 접하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밀도를 높여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부산형 어린이 영어교육’의 일환이다. 지난해 11곳을 대상,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나타났다. 시는 올해 이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부산의 16개 전 구·군으로 설치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수반기에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들락날락 33곳의 신청을 받아 4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

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4개월 단위 기수제(연 2기)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의 연결성을 높이고, 유아반·초등반을 구분해 조금 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파닉스 수업 등을 진행해 아이들이 소통과 놀이를 통해 좀 더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늘 24일 수영구 ‘망미작은도서관 들락날락’과 ‘민락작은도서관 들락날락’을 시작으로 1기 수강생들의 수업이 시작된다.

시설별 프로그램 시작 및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들락날락 누리집(www.busan.go.kr/bschild)을 통해 참여 희망하는 들락날락 누리집에 접속 확인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참여 비용은 전액 무료다. 한편, 시는 4월 이후 완공 등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하지 못한 ‘들락날락’을 대상으로 하반기(2기, 9월~12월) 신청을 추가로 받으며, 더 나아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 참여



단체수업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누구나 집 앞 ‘들락날락’을 방문해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 시설을 늘리겠다”라며, “우리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고품질의 평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우리아이 영어교육 걱정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배연정 氏 ‘제67회 보화상’ 대상 수상

대구·경북 최고 효부 반열에 올라

청송군은 진보면에 거주하는 배연정 씨가 재단법인 보화원이 주최하는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보화상 시상식은 재단법인 보화원에서 매년 대구 및 경북 지역의 효행과 열행, 선행을 실천한 이웃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배연정씨는 30여년을 간호사로 근무하며 이웃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

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효행을 실천하는 등 보화상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우리 청송군에서 나와 자랑스럽다.” 고 밝혔다.

한편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 보화원회관 송당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수비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시행



수비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OO(남, 60세)씨 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일환으로 집수리(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이 노후되고 주거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복지팀에서 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했다.

수비면행정복지센터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이 연계·협력

하여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김민경 수비면장은 “관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해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출향인들의 기부 릴레이 이어져

김학동 예천군수, “많은 출향인 분들이 예천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혀

예천군은 지난 21일, 재대우예천군민회는 윤선식 회장의 3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정하용 수석부회장 100만원 ▲이세철 수석부회장 100만원 ▲황해욱 이사 200만원 ▲사무국 일동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은풍중학교 제10회 동창회 원동회 회장 외 29명도 72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예천사랑을 실천했다.

그 외에도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희시 500만원 ▲김정태 500만원 ▲황정근 500만원 ▲정재송 500만원 ▲윤정아 300만원 ▲김경숙 300만원 ▲안상준 300만원 ▲장연수 300만원 ▲우병수 300만원 ▲이창민 300만원 ▲최재호 250만원 ▲최재규 250만원 ▲안상규 200만원 ▲손경목 200만원 ▲이장규 150만원 ▲김은희 110만원 ▲강정수 110만원 ▲오창훈 100만원 ▲김신일 100만원 ▲주강숙 100만원 ▲김기철 100만원 ▲김무중 100만원 ▲김명곤 100만원 ▲김문식 100만원 ▲이동주 100만원 ▲김경선 100만원 ▲김윤리 100만원 ▲최상호 100만원

김신일/기자





# 식중독 발생 주의보! 이것이 문제다

## 경북도,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위생취약업소 140여 곳 특별점검 일교차 큰 봄철, 도시락·운반급식 등 보관·운반에 각별한 주의 당부

경북도는 식중독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이 어려운 학교, 기업체 등에 구독형 도시락, 운반 급식 등의 대체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식 조리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당부를 위해 추진한다.

\* 구독형 도시락: 정기적으로 배송해 먹는 도시락

\* 운반 급식: 조리한 음식을 운반·제공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음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야외 활동 증가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달 도시락, 운반 급식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발생

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시락 제조업체 및 한식뷔페, 운반 급식 제공 음식점 등 149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음식 보관 및 운반·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한다.

아울러, 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별 주요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중독은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취급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 선비촌, 소수서원, 도심 전제가 축제장으로 변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시작과 함께 영주시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 정신의 도시 영주에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개최된다.

황금연휴인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선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선비정신과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를 개최하는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영주 고유의 정체성과 축제 본연의 가치,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축제 첫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장을 거쳐 서천 둔치에 마련된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에는 영주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개성 있는 선비 복장으로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전한다.

서천둔치(시민운동장 앞) 축제장에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교지 퍼포먼스,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영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쇼를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비의 숲(홍보관), 선비의 치유(한방 건강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가

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선비&아트 공예품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장신구와 공예품도 함께 전시해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선비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니게임, 전통놀이, 포토타임 등 볼업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둘째 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에는 경북 도립국악단의 공연과 핑크퐁, 아기 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공연이 진행되며 주무대에서는 이창호 바둑기사의 지도 대국이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또 다른 무대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선비촌 일상재현(마당극), 문종의 후손 초청 프로그램인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도체험과 명가명주(전통주)체험, 밤을 걷는 선비(소수서원 야행) 등 장소의 역사, 문화적인 감성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선비세상에서는 ‘2024 어린이 선비축제’를 개최해 어린이 선비 장원급제, 어린이 상상극장, 열기구, 캠크닉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준비된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의 5월은 선비문화 체험으로 가득하다. 축제에 앞서 5월 2일과 3일 양일간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뮤지컬 정도전이 공연된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소수박물관·인삼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축제 백일장, 전국 민속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영주 도심을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금자/기자

# 상주시, 625억 규모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강 영석 상주시장,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 증점 투입, 시민 생활 편의 위한 SOC확충 투자했다,” “상주 미래 위한 추경예산으로 의회 의결 즉시, 신속 집행”

상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625억원이 증액된 총 1조 2,375억원을 편성해 4월 23일(화)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1,750억원 보다 5.32% 늘어난 것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1조 977억원 대비 580억원(5.28%) 증가한 1조 1,55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118억원에서 6억원(5.08%) 증가한 12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655억원 대비 39억원(5.95%) 증가한 694억원이다.

상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SOC 확충에도 집중 투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쌀) 지원 ▲아이돌봄봉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출산·돌봄·주거·청년 등의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SOC 확충사업으로 보행교 설치, 노후교량 개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도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으로는 ▲복동동 유적연결 보행육교 설치공사 46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2단계 43억원 ▲(구)농우마실 부지 매입 40억원 ▲합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4억원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 25억원 ▲남적,신상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20억원 ▲합창 오사~중촌간 중로 개설 16억원 ▲내서 능암, 신촌처리구역 외 2지구 하수관로

정비 설계용역 15억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3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11억원 ▲계통교·중덕교차로 중로 개설 11억원 ▲상주읍성 복원사업 편의가옥 철거공사 10억원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축부지 매입 1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10억원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7억원 ▲사별 목상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억원 ▲합창 신덕리(리도207호선) 정비 6억원 ▲중동교 노후교량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시립도서관 운영 3억원 등이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을 증점 투입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SOC 확충에도 과감히 투자했다”며, “상주의 미래를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의회 의결 즉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30일부터 개최하는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5월 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 삼전패의 도상 차용, 검은 바탕에 금선묘 사용 등 조선 후기 드문 사례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이하 성보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安東 仙刹寺 三世佛圖)」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는 1823년 신겸이 증명을 받고 학송당 선준이 양공이 되어 함께 제작했으며, 경북 문경 대승사에서 형성됐던 사불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퇴운당 신겸 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 화면에 삼세불인 석가·약사·아미타불을 두고 지장보살이 조합된 새로운 도상을 갖춘 개성 있는 불화로서 신겸의 특징인 파격적인 도상의 전용과 창출이 구현돼

있다.

현재 화기의 박락으로 육안상 판독은 어렵지만, 선형 자료와 경북 지역 불화를 통해 신겸과 선준, 수연의 작품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여래와 나한인 인물 표현, 정치한 필선, 다양한 기물 선택 등에서 사불산화파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전패의 도상 차용과 검은 바탕에 금선묘를 사용한 점은 조선 후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국가유산 103건을 비롯해 국가등록유산 5건, 경상북도 지정유산 232건 등 총 340

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문화재 지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문화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찰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현재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91-17(천지리 574-3)에 자리해 있다. 원래 선찰사는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에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1984~1993)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법당 내부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삼존불



이 보관되어 있다. 윤근수/기자

# “환경! 운동!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평산초 플로깅”

## 2024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 평산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는 지난 20일(토), 학생과 학부모 115여명이 참가한 ‘2024 평산초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평산초등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3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4 평산초 플로깅’에 참여한 5학년 학부모는 “올해 처음하는 플로깅이라서 생각보다 주변에 쓰레기가 많았

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아이가 커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했다.

이재구 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참여를 통해 가족 유대감 형성, 건강 체력 증진, 환경 정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송광삼/기자



# 의성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 김주수 의성군수,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해 앞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해

의성군은 의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2일 안계면 위천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의성군새마을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 및 군의원, 기관·단체장, 새마을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 명랑운동회 및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희용 회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새마을운동도 우리 지역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해 앞

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의성군새마을회는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농약빈병 모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탄소중립 실천과 행복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 경북도, 문체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 사업 2개(광역1, 기초1) 선정

### 광역 국비 2억2천만원, 경북 '일심동체' 브랜드 각인 마케팅 추진 기초 국비 1억5천만원, 울진군 해양레포츠허브에 워케이션 거점시설 조성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기업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지역은 생활 인구를 유인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떠오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분야에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5개 시군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공모사업으로 경북 워케이션 사업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올해 워케이션 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상북도 '일심동체'

워케이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콘텐츠 제작과 워케이션 체험데이 등을 운영해 '일심동체' 워케이션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설 조성 분야 공모에 선정된 울진군은 대해면에 있는 울진해양레포츠허브 2층을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숲과 바다를 테마로 팀별 사무공간, 독립형 사무공간,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센터 내 숙박시설과 프리다이빙 체험, 다이빙 자격증 취득 등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환동해권 워케이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운영지원 부문과 시설 조성 부문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인프라와 상품화전략, 관리운영 역량을 평가하였다.

운영지원에는 경북을 포함한 총 7개 광역자치체, 시설 조성에는 울진을 포함한 총 6개 기초자치체가 선정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문체부 공모 선정을 계기로 경북은 워케이션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살아가기 관광상품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마케팅을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금정구, 범어 경로당 개소식 개최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22일, 청롱노포동 범어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을 하였다.

범어 경로당(청롱동 42-10)은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던 단층 건물을 매입하여 47.7m² 증축 및 81.55m² 리모델링을 통해 연면적 129.25m²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조성하여 지난 1월 준공했다.

이날 개소식은 청롱노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기타 연주공연, 민요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식전 공연이 진행되어 분위기를 돋웠고, 이후 범어 경로당으로 이동하여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소식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는데, 경로당이 새로 생겨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렌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재윤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지구의 날' 기념하여 탄소중립 실천

소등행사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이벤트 추진

윤경희 군수, "이번 행사를 시작, 기후변화주간에 많은 군민과 기관이 참여,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일상에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송군은 지난 22일(월), 지구의 날을 맞이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54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22일을 소등행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된다.

청송군은 기후변화주간 요일별 기후행동을 제안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월요일 기후행동의 날 :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해요! ▲ 화요일 기후행동의 날 : 소중한 물은 아껴주세요! ▲ 수요일 자원순환의 날 :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해요! ▲ 목요일 녹색소비의 날 : 저탄소친중 농산물 이용해요! ▲ 금요일 친환경이동의 날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해요! ▲ 토요일 생활실천의 날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요! ▲ 일요일 생활실천의 날 : 1회용 대신 머그컵과 텀러 사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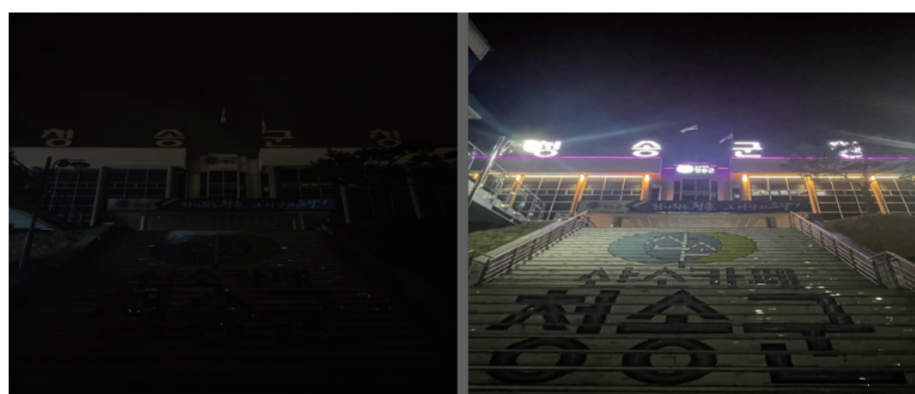
또한 기후변화주간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를 연계하여 탄소중립 홍보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사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아울러 청송군민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의 가입자가 전국 소등행사 참여를 SNS로 인증하면 다회용 보냉백, 친환경 수세미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소등행사 이벤트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주간에 많은 군민과 기관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일상에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및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성황리 개최

### 박형준 시장, "맨발 걷기 친화 도시 부산 실현 위해 공원, 산림과 해양 자원 등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어싱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부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일보사, 부산시의회, 부산상회, 비엔케이(BNK) 금융그룹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및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을 시작으로,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바르게 걷기/몸풀기 스트레칭 특강, 그리고 백사장 1.5km를 순환해 총 3km를 맨발로 걷는 '세븐비치 어싱챌린지 첫 번째 해운대 백사장(비치)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어싱 챌린지'는 발바닥 건강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중점으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맨발로 부산의 7개 해변을 차례로 걷는 행사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월 광안리, 9월 다대포, 11월 송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5년 까지 총 7개 해변을 돌 예정이다. 전체 완보자에게는 별도 인증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이뤄졌으며, 우천 속에서도 사전 신청한 참가자와 현장 신청으로 함께 걷는 시민들까지 더해 총 2천여 명이 함께 걸었다.

참가자 K씨는 "이번 행사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도시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더 깊이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가질 수 있었다"라며, "7개의 해변이 있는 부산은 맨발 걷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전했다.

참가자 P씨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체험으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균형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며, "부산의 7개 해변을 걸어보는 세븐비치 어싱챌린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바다도시 부산을 알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맨발 걷기 친화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공원, 산림과 해

양 자원 등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어싱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다음 챌린지인 광안리편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소멸 위기대응,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 단행

대구 남구는 인구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및 세입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과 주민 소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에 지정되는 등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체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한다.

'인구정책국'은 분산돼 있는 인구 관련 업무를 통합, 다양한 영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남구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체계 '무지개프로젝트'의 주요 분야인 결혼, 임신·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주거정책을 보다 강도 높게 원스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구업무 총괄을 위해 신설되는 인구정책국은 인구총괄과를 비롯,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해 인구정책 특별대책 '7대 분야 21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부채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화에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예산팀을 분리하여 재정지원팀을 신설하고, 세입 증대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 2과로 분리 재편한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요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팀을 홍보미디어과로 확대 신설하고, 각종 SNS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주민 참여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프포지 후적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앞산 일대 전국적인 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남구의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후

반기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4월 임베이고와 6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기존 3국 1실 19과에서 4국 1단 1실 20과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향후 10년 이내 생활인구 50만명(정주인구 20만명, 체류인구 30만명)을 목표로 인구정책과 핵심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민선8기 후반기에도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명품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상주패션거리 준공식/2024 제4회 왕산 도심문화축제'

지난 20일, 정성원 부시장, 남영속 도의원, 이경욱 상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왕산지구도시재생위원회, 왕산상인회 주관, 상주시·상주시의회 후원으로 개최된, '2024 제4회 왕산 도심문화축제'는 도시재생 상주패션거리 사업준공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서문사거리 중앙로와 패션거리 일대에서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열렸다.

이러진 축제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지역 예술가 및 초청 가수의 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이 외에도 40여 개의 전시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는데, 도심 지역의 상가 상인들이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심병보 도시재생위원장은 "곳은 날씨 속에서도 찾아주신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상주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생업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성원 부시장은 "예상치 못한 우천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왕산상인회, 도시재생위원회, 왕산지구도시재생위원회를 비롯,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사고 없이 준비한 만큼 원활히 진행된 것에 뿌듯하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영양농협-북영덕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영양 농협과 북영덕농협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 지자체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영양농협 직원 55명과 북영덕농협 직원 5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서로의 지자체에 10만 원씩 각 550만 원을 기부했다.

양농협 영양농협 조합장은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호기부금 추진하게 됐다"라며 "양 기관의 상호기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환 영양군수는 "한마음으로 상

호기부에 참여하신 영양·북영덕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기부금은 영양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영덕형 스마트팜 종합평가회 개최

김광열 영덕군수, “이번 평가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지도 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배 단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과학적인 농업이 접목돼도록 농업인·관계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겠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청년 스마트팜 스타트업 지원 및 시설원에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관내 농업인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평가, 사업별 문제점, 개선 방안 토의, 생산물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영덕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2개 분야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스마트팜 최초 도입을 통한 첨단농법 확산 및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확보 및 농촌 정착 여건 지원 ▲탄산가스 공급을 통한 광합성률 증가로 농산물 생산량 증대 ▲영덕형 스마트팜 하우스 개발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영덕군은 이번 종합평가회를 바탕으로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증과제 추진 결과 우수한 사업은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종합평가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배 단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과학적인 농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서울시, 수돗물 생산 노후 펌프 집중 점검...에너지 효율 높여 예산 절감

대형펌프 구매 시, 성능 보장 내용 명기해 납품 업체 책임성 강화로 부실 펌프 원천 차단



서울아리수본부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동력비 절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수돗물 생산에 든 동력비는 74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대형 취·송수와 가압펌프가 에너지 사용량의 약 90%를 차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개선 과제이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정수센터 취·송수 펌프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하는 가압펌프에 대한 성능진단 및 개선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동력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300마력 이상 펌프 설치 현황은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취·송수 펌프 125대, 8개 수도사업소에 가압펌프 39대 포함 총 164대이다.

이 중 시범적으로 지난해 아리수정수센터 취·송수 펌프 18대와 수도사업소 가압펌프 37대에 대한 성능 진단을 실

시해 31대에 대해 수리,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요 펌프 구입 시, 계약서에 성능 보장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 부실 펌프 납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경 500mm 이상 중형나팔제로 발주되는 취·송수 펌프를 대상으로 하자 보증기간인 3년 동안 2회 이상 펌프 성능을 분석하고, 2% 이상 효율이 저하된 펌프의 동력비를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다. 올해 교체 대상인 송수 펌프 8대를 시작으로 향후 신규 도입되는 취·송수 펌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아리수본부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 진단을 통해 최근 5년간 약 64억 원의 용역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울진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주)하이셀텍-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MOU 체결

전기차 충전 복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설치로 분산 전원 확대 사회적 비용 및 전력 손실 해소 기대



울진군은 지난 22일, 울진군청에서 (주)하이셀텍(대표이사 김길훈), 영남에너지서비스(주)(대표이사 곽원병)와 ‘울진군 융복합 수소연료전지 사업 유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복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기차 복합 연료전지 스테이션 사

업이란 도심 내 국유지·공유지·주유소 등의 유휴 부지에 연료전지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기뿐 아니라 인근 배전망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소와 수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는 저탄소 발전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 보유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도심형 분산 전원 및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분산 전원 보급율을 높이고, 송전 손실 및 송전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시장은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송전망 건설 입지 문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빠르게 확충하고, 경북형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 모델로 확대하여 경북 관내에 분산형 전원의 우수 모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분산 전원의 보급율을 높이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강남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 버스비 지원 나선다

시내·마을 버스 이용액에 대해 연 최대 65세 이상 어르신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환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스템 구축, 회원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과 6세~18세 청소년·어린이가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타 자치구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모두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은 강남구 전체 주민의 26%인 13만 7300여명이다.

분기별 지원 금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세~18세) 4만원, 어린이(6세~12세) 2만원으로, 연간 최대 24만원, 16만원, 8만원까지 돌려준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어르신들은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들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서

울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3월 시스템 구축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6월~7월에 콜센터 등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9월 본격적인 홈페이지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 사업의 어르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지원사업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청소년·어린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연계해 버스비 지원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충청남도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기술 선점 속도낸다

## 도, 산업부 주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선정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 해온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기술 선점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도와 예산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0억원(국비 50, 지방비 60억)을 투입해 예산을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내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를 구축한다.

산업부가 공고한 이번 사업은 두 지역간의 특징점을 활용한 지역 연계형으로, 도는 부품·모듈 단위 평가 지원 공모에 선정된 경남과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열관리시스템 및 부품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개발된 부품을 실제 차량에 탑재해 열관리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경남은 앵커기업 중심 미래차 열관리시스템 업종 전환을 진행 중으로, 협력업체의 미래차 열관리 부품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남과 연계협력을 통해 열관리시스템 품질 향상과 극한 환경 시험평가, 성능 검증 기반구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부품 전문기업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시험평가 등 기업지원 및 기술지도 △지역 간 연계 협

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국내 공조·전장업체 177개사가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매출액 110억원 증대, 신규 고용 165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예산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는 다음달 초 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경남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해 일괄(원스톱) 기업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실제 차량에 열관리 부품을 장착해 극한 환경에서의 열관리시스템 시험·평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아산시, 전국 최초·유일 과학적 기반 온천 건강프로그램 시범 운영

## 국민건강기금 활용, 근골격계질환·어린이비만 관리 온천 아카데미



아산시가 오는 5월부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지원센터에서 근골격계질환과 어린이비만 관리를 위한 전국 최초의 과학적 기반 온천 건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온천 건강프로그램은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도시 특화사업(온천치유 과학화)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 선정 및 국비(건강기금)를 확보해 온천치료 급여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아산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천의 의료적 효능검증 체계화 사업'과 수중 시설과 장비가 완비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지원센터를 연계해 추진하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기금사업도 함께 활용한다.

한편 아산시는 그동안 관광진흥과, 보건소,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주명선)이 각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근골격계질환과 어린이 발육 촉진 및 비만 관리를 위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우선 근골격계질환 개선을 위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센터와 파라디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주 2회, 4주간 온천의 따뜻한 온열 효과와 물의 저항을 이용해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근력 운동으로

나누어 근육 이완, 통증 완화 등 근골격계질환 개선 효과를 촉진한다.

또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온천 수중운동 강습 전·후를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한 건강측정을 통해, 온천 건강프로그램의 효능·효과 검증 및 데이터화로 온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과학화를 추진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어린이 발육 촉진 및 비만 관리에 참여하는 대상자 또한 온천 수중운동 강습 전·후를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해 건강을 측정하고, 효능·효과 검증 및 데이터화로, 온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과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다른 지자체에 유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온천수를 활용한 사업은 최초의 시행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 대상이나 사업의 유형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새 단장 마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새 물건 쇼핑하러 오세요"

## 도청 신관 1층으로 이전, 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 150여 품목 갖춰

충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22일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옆 로비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이전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및 행정문화위원회 도의원 10여 명, 허경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넓혀줄 판매장의 새 단장을 함께 축하해주었다.

개장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축하 인사 말씀, 제막식, 판매장 관람, 제품 시연회 등으로 진행됐다.

판매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청 서관 1층에 자리를 잡은 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미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을 연 지 약 17년 만에 도청 신관 1층으로 자리를 이전하고 내부 개선 공사를 거쳐 재개장하게 됐다. 현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는 식품, 주류, 생활용품, 화장품 등 49개 기업의 150여 품목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판매장이 민원실 옆으로 이전하면서 도청 방문객의 접근성이 좋아질뿐만 아니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을 찾으러 도청에 방문한 한 민원인은 "대기 시간에 잠시 판매장에 들러 '짬짬이 쇼핑'을 했다"라며 "깔끔한 내부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라고 구매 소감을 밝혔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은 단단한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개장식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충북 대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이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입점 제품들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정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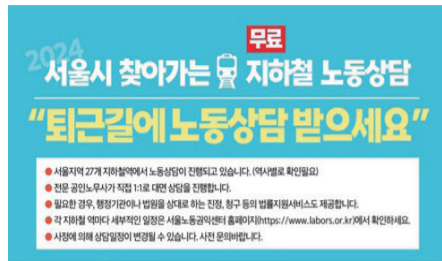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 바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준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배달라이더 등 대상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



상담은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성을 높여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 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4월 22일)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역술한 일 또는 궁극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 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하여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우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강남구, 철저한 사전 점검·훈련으로 올여름 집중호우 대비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 시설물과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오는 24일 한강나들목의 육갑문을 시운전한다.

구는 지난 3월~4월 대치빗물펌프장 등 8개소와 대치배수문 등 수문 12개소에 대해 관리 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했다. ▲펌프, 수배전반 등 펌프장 주요 기전시설물 관리상태 ▲수문 시운전 및 권양기, 문비·문비 관리상태 ▲CCTV, 수위계, 통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올해는 선정릉 저류조에서 중형 양수기 가동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4월 22일에 열린 훈련은 대형 빌딩의 실제 침수 상황을 가정해서 중형 양수기의 하차, 결선, 가동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금 확인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 중인 수중펌프 등 수방 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추가로 수방 장비 180대를 구매했다. 확보한 수방 장비의 90%를 각 동 주민센터, 강남소방서 등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지하 주택의 건물 침수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양수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신사나들목, 강남나들목, 신정나들목 3개소의 육갑문 시운전 점검을 실시한다. 육갑문은 집중호우 등으로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하천수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문으로, 평소에는 구민들이 한강공원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시운전을 통해 육갑문 개폐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권양기, 문비·문비 관리상태 및 하부 문비 내 토사와 이물질 적치 여부를 점검한다.

육갑문 시운전 점검은 홍수로 인한 한강의 범람상황을 가정해 실시할 때

문에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구는 강남경찰서와 미래한강본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현수막을 게첩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로 이용을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풍수에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중희/기자



# 충청남도 불법 자동차 합동 점검 나선다

### 도, 24~26일 사업용 여객·화물차 대상 집중 지도·점검

충남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만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철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차차 등이다. 이외에도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클러킹 불법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의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등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이해

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경남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임도 집중 안전점검 실시

###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민가주변 임도시설 등 재해위험 대상지 점검

경남도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주변 임도시설 등 139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가주변 임도시설 71곳과 최근 5년간 산림피해 복구사업지 68곳 등 재해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점 시설을 위주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토목 분야 교수, 산림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도 지역기술자

문단도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측구, 배수로 막힘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군에 배치된 임도관리원(59명) 또는 장비를 투입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 안전 조치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일부 임도에 피해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예찰·점검 활동과 보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성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이상기후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

주 발생하고 있으나 철저한 임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명 피해 제로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통영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현장점검

###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현장 방문 및 조치사항 점검



통영시는 국립수산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9차, 2024년 4월 18일 기준), 용남면 수도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0.93mg/kg)됐다고 밝혔다.

이에 통영시 부시장은 패류채취가 금지된 용남면 수도 해역을 방문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돼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패류독소 해역을 찾은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등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유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 경북교육청, 유천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중간설계 심의회 실시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품질과 경제성 향상



경북교육청은 19일 본청 행정지원동 설계협의실에서 설계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천초등학교(예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간설계 심의회를 가졌다. 이번 심의회는 시설 사업 추진 중 중간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분야별 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마련됐다. 심의 대상은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이며 해당 교육시설은 교사

당과 급식소, 전산 분야와 관련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중간설계 심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노후화된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조성해 수요자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2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 유천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경상북도 예천군 가리 746번지에 7학급(특수학급 1학급) 67명 규모로 총예산 96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설계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8개월 간의 공사(예정 기간)를 거쳐,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중간설계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설계와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영덕도서관, 학부모를 위한 미래교육 전문가 특강 운영

2024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은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달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이해, 교육철학, 미래교육, 진로진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24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는 부모양육태도검사로 알아보는 올바른 양육 방법, 심재원 작가의 '아이 스스로 행복 찾는 핀란드 육아법', 2025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대비하자, 의대 입시의 모든 것, 진동섭 한국진로진

학정보원 원장(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의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특강 등의 교육 전문가 강연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부모는 "자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계속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오는 23일 14시부터 선착순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신청은 영덕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문화/기자

### 생각쑥쑥, 창의팡팡! 오늘은 과학의 날!

문경 가은초, '창의과학의 날' 행사 실시



가은초등학교는 지난 22일(월), 본교 1~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각쑥쑥 창의팡팡 창의과학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로켓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사기를 이용한 로켓을 제작하여 정확한 목표점에 발사하는 에어로켓, 태양광 자외선 아래에서 색상이 변하는 자외선 탱탱볼 만들기, 올림통과 풍선막을 이용한 간이악기 연주하기, 슈링클스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등 총 4개의 부스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하고 싶

은 활동들을 직접 선택하여 체험을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김○○ 학생은 "오븐기 안의 마법종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신기했고, 집에서 체험하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6학년 남○○ 학생은 "작년에는 에어펄프를 밟는 로켓을 만들어서 힘이 부족해서 멀리 날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주사기를 활용하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멀리 날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동현/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폐교에 희망의 씨를 심다

영덕교육지원청, 폐교를 원예 체험 농장으로 조성

영덕교육지원청은 폐교한 강구초등학교직전분교장을 체험 농장으로 조성하여 4월 22일, 영덕교육지원청 직원 14명이 희망의 씨 심기 원예 체험활동을 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올 3월부터 논갈이와 비료 살포, 비닐 피복 처리, 농장 수도 시설 설치, 농지 구획 등의 작업을 통해 텃밭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지 분양 신청을 받았다. 현재 농지 분양에 강구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4개 학교가 응모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남은 농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영덕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부모 응 신청서가 탑재되어 있다.



윤인한 교육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덕교육지원청 체험 농장이 폐교를 활용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고, 씨앗을 심고 키우는 텃밭 가꾸기 활동이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탄소중립 교육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장문화/기자

### '내가 먼저 도울래요' 유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영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2일(월) 영양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 및 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이경미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유아의 눈높이에맞게 '장애인에 대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장애 발생의 원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다룬 영상 시청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돕기로

약속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유아는 "도움 받은 친구들이 불편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먼저 손잡고 잘 도와줄래요."라며 따뜻한 소감을 나누었다. 이승준 원장은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은 자주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이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경주 이음학교지원센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이음학교지원센터는 지난 19일(금), 20일(토) 이틀간 2024학년도 상반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안전요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51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애분 강사와 김수영, 이순자 강사를 초청하여 15시간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현장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심폐소생술, 재난 안전 교육, 수상·교통안전교육 등의 이론 교육과 응급 상황 사례 및 대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훈 교육장은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므로 현장체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연수에서 익힌 대응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콘텐츠 기업-웹툰 지망생 매칭...서울시, 만19~39세 청년창업자 취업 지원

##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구직 청년과 콘텐츠 기업 매칭...2년간 127명 취업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의 66.9%가 평소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79.3%), 애니메이션(78.9%), 캐릭터(71.0%) 산업에서 70% 이상의 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분석 연구(2023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 구직자와 콘텐츠 기업을 매칭하는 '청년 창작자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80명 이상의 취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K-콘텐츠

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분야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은 구인-구직 미스매칭 등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1월, ▲창조산업 핵심인프라 구축, ▲창조산업 성장을 견인할 5대 산업(XR,영상,미디어,웹툰,게임) 집중 육성, ▲전문인재와 기업을 육성해 창조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창조산업 육성계획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콘텐츠산업 분야 청년 창작자 취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맞춤형 일자리 매칭 ▲취업 컨설팅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총 127명(2022년 55명, 2023년 72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 기업에 취업했다.

구인기업 및 구직자 모집 콘텐츠산업 분야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상비즈플랫폼'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상시 모집한다.

맞춤형 일자리 매칭 구인기업의 희망 조건과 구직자의 희망직무 및 역량 파악을 통해 이대일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다.

취업 컨설팅 지원 '상상비즈플랫폼'을 통해 매월 새로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취업 서류에 대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2023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87.5%가 취업 도움 여부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93.8%가 프로

그램 지속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기업탐방은 졸업예정자 중 콘텐츠산업 분야에 취업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망한 콘텐츠 기업을 방문해 직무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연초에 참여 의사를 밝힌 특성화고등학교 16개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콘텐츠 기업과 매칭 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은 로쿠스(유미의 셰프들), 퍼니플릭스(슈퍼웍스, 엄마까투리), 드림팩토리스튜디오(판파다이노), 연필로명상하기(소나기), 오콘(선물공공 디노), 사이드9(코드네임X), 하얀오리(몰랑) 등 콘텐츠 제작사 위주로 진행했다.

콘텐츠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청년이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콘텐츠 기업은 4월 22일부터 상상비즈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디자인, 특수효과, VR-AR 등이며,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전 세계에서 K-콘텐츠가 확산하는 시점이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며, "분야별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경력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충남도 최고·최대 스마트팜, 현대·KT와 만든다

##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 협약...우듬지팜·그린플러스 등도 동참

충남도가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단지인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동참한다.

정부가 출자에 만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 발판을 다지며, 민선8기 힘센충남의 역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홍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성제현 KT 본부장, 유창규 KT엔지니어링 부문장, 장승호 에이앤오제일차 대표, 윤동률 우듬지팜 대표이사,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 등과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농업 수익구조 창출 등 융복합 스마트팜 단지 운영 성공적인 추진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관·기업은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에 대한 원활한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기반시설 조성, 운영·활용 등 직·간접적인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와 서산시는 출자에 필요한 절차 이행,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KT는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 통합 관제 플랫폼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

KT엔지니어링은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 및 책임 준공에 참여키로 했다.

각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SPC컨소시엄은 △사금 출자, 신규 펀드 조성, 자산 운용 등 금융 관리 △콘텐츠 발



굴, 계획 수립, 기반 확충, 설계 시공,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개발 △온실 신축·운영,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스마트팜 조성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협력한다.

각 기관·기업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주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김태홍 지사는 "충남도 반도체만족이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이며, 그런 점에서 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는 충남에 또 하나의 국가첨단산업 단지가 될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은 2026년까지 서산 간척지에 3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 돈 되는 농업, 청년들이 유입되는 농촌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인프라 조성부터 금융·시공·생산·가공·수출까지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라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별출티

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다.

투입 사업비는 3300억 원으로,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하고,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더해 조달할 계획이다.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는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을 해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

도는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영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으로 예상하고,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글로벌별출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전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광주광역시, 차량 엔진·배터리 재제조...토리노 순환경제 허브 '눈길'

## 스텔란티스, 토리노에590억 들여 구축...탄소중립·신사업 기대

자동차도시 이탈리아 토리노의 '차량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이 눈길을 끈다. 세계적 자동차기업 스텔란티스(FCA그룹과 PSA그룹이 합병)가 지난해 이탈리아 토리노시 미라피오리 콤플렉스에 개관한 '순환경제 허브(CE: Circular Economy Hub)'이다. 탄소중립·기후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도 '자동차 순환경제' 시범 운영을 구상 중이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최근(15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시 미라피오리 콤플렉스의 '스텔란티스 순환경제 허브'를 방문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 스텔란티스는 약 590억원을 투자해 미라피오리 콤플렉스 부지 7만3000㎡(약 2만2000평)에 엔진, 기어박스, 배터리 등 부품을 재제조해 차량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재활용 가능한 모든 것을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허브'를 구축했다.

스텔란티스는 재제조된 부품은 '수스텔네라(SUSTENERA)' 판매 채널을 통해, 재제조된 자동차는 '스포티카(SPOTICAR)'라는 중고차 사업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스텔란티스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최대 5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2030년까지 800만개의 중고부품을 관리하고, 15만개의 재제조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스텔란티스는 이 사업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신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료 소비와 폐기물,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4R 전략'을 기반으로 한 '순환경제 모델'이다. 자동차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전체 차량의 라이프사이클을 '360도 순환하는 방식'이다.

스텔란티스는 이 사업을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스텔란티스는 토리노의 피아트를 흡수한 자동차 다국적기업으로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 5개국 15개 자동차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세라티, 지프, 푸조 등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은 870만대로 세계 3위이며, 매출액은 2019년 기준 226조원에 달한다. 토리노시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에서는 마세라티, 알파 로메오, 피아트500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의 특징은 로봇으로 자동화한 '유연생산시스템(AGV: Automated Guided Vehicle)'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는 공장에서 자동차 차체·부품 등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차량운반 시스템'과 운반된 자동차를 조립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 작업자와 로봇이 지능적 협업을 차량을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생산시스템에 적용된 실내 자율주행기술은 광주시 소재·부품·장비 자

율주행의 인지(센서), 제어, 통신 기술과 맥을 같이 하고 협력할 경우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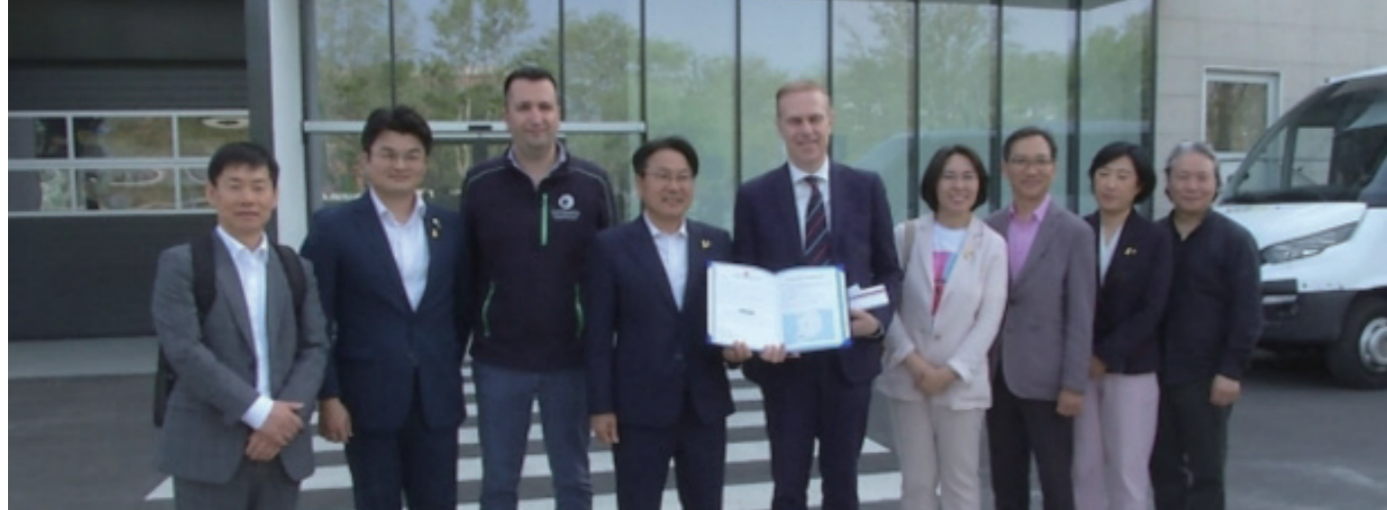
광주시는 자동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생산과 재활용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점검해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 순환경제 모델'의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100만평(338만4000㎡)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소부장특화단지인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714만㎡(220만평)를 대상으로 진국산단은 미래차 부품생산단지로, 빛그린국가산단은 인증·완성차단지로, 미래차국가산단은 미래차 실증단지로 각각 육성해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광주는 대한민국 제2의 자동차도시이다. 자동차 생산도시이자 미래차 생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국내 유일의 내연기관 부품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앞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리노시와 스텔란티스 관계자들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포럼'에 초청해 자동차 순환경제와 미래차 기술을 함께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  
k-shoppingfesta.org

살맛나는 행복쇼핑

# 도해축제

2024

## K-SHOPPING FESTA

2024.5.1-5.28

